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 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도시 전주

사람 · 도시 · 품격...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 완성도 높여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의 정책전환은 국제적 흐름으로 발전했으며 이에 맞춰 전주시는 '행복'이 추상적 슬로건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목적을 주민행복의 증진에 있음을 깊이 공감한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주관적 행복을 정책화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고차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시민이 행복이라는 도시 전주에 한발 다가섰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목민관클럽 등 협의회를 결성 또는 가입하여 지방정부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만의 차별화된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29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열태영 수원시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김삼호 광주 관산구청장, 홍성열 평택군수, 맹정호 서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이지훈 국민총행복포럼 운영위원장 등이 모여 '행복시가지방정부협의회(가칭)' 구성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렸다.

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전주시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 전주
가장 인간적인 행복한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상대적으로 덜 행복한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더불어 공유하여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 구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민선6기 출범 후 첫 결재사업인 '밤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복지 정책으로 사람중심 정책의 한 획을 긋는 모범사업이다. 아울러 어두운 성매매 집결지, 여성-인권-문화재생의 메카로 자리 잡은 선미촌 재생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손꼽히며, 지혜의 반찬, 희망 굶는 손수레 사업, 달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등 복지정책과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 실현,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운영, 생태동물원 조성 등 사람·생태·문화로 대표되는 전주형 정책들을 펼쳐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전주역 차타증고는 물론 민선7기 김승수 시장의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사업은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과 풀, 나무 등 도시의 원래 피부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생태 행복도시 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서울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 생태, 문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시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 가장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개 대법주와 12개 영역과 9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람 범주에는 △소득과 소비 만족이 주는 행복 △일자리 환경이 주는 행복 △관계만족이 주는 행복 △공동체 신뢰가 주는 행복 등 4개 행복도 영역, 23개 지표가 개발됐다.

또한, 도시 범주에는 △양육 및 교육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서비스(복지, 보건, 문화, 행정)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안전 및 자연환경이 주는 행복 △교통 및 이동권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경제 만족이 주는 행복 3개 지표가, 품격 범주에는 △지역문화와 정신적 유산이 주는 행복 △전주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행복 △미래 삶 전망에서 오는 행복 등 3개 영역, 36개 지표가 각각 포함됐다.

이렇게 개발된 행복도 측정결과는 행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조건들 즉 일자리 및 소득/건강/보육 및 교육/여가 및 문화/환경/가족 및 공동체/안전 접목하여 시민행복 견인 가능한 정책개발 및 현재 추진사업의 점검기회로 활용해 가고 있으며, 향후 행복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복영향평가와 행복조례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사람의 도시를 그리다

전주시는 행복한 사람의 도시, 그 해답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전주형 공동체 경제를 통해 찾아가고 있다.

민선 6기 이후 공동체 복원을 전제로 한 경제지립과 먹거리지립, 에너지지립, 문화지립을 통해 전주를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들이 행복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람·생태·문화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키워 시민들이 행복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담론의 장인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 나누며 활발하게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를 육성했다.

또한 행복의 경제학뿐 아니라 현재 우리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 푸드(Local Food),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및 기금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담론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

탄소산업 현장 찾아가는 기업 지원

탄소융합기술원, 프로그램 가동... 기업 간담회 열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면서 기존 연구 중심기관에서 기업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나섰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운혁, 이하 기술원)은 29일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탄소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고, 상상·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지역 탄소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방 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두 달 동안 전주소재(비나텍, (주)테크카본)와 군산의(고스텍(유), (주)비에스엠신소재, (주)휴먼컴퍼티), 정읍의(주)크린앤사이언스) 등 도내 탄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유관기관을 찾아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기술원이 이처럼 기업소통에 나서게 된 것은 방운혁 신임원장이 취임 행사 대신 기업 현장과 유관기관 방문 일정을 추진하며 '찾아가는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문을 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신상품개발지원센터도 매일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기술정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상품개발지원센터는 지난 6월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지원사업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난달에는 '미래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모색'

을 주제로 기술정보 세미나를 여는 등 기업에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

기술원은 현장 방문과 세미나 등을 통해 탄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상담 내용을 기술원 전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해결시스템도 구축했다.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기존의 연구중심 기관운영에서 기업지원 중심의 기관운영으로 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탄소산업의 마케팅 기업지원, 수출,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생활복지과, 추석 맞이 장애인 시설 방문 생필품 전달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29일, 추석명절을 맞아 장애인 시설인 작은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인후동에 위치한 작은 나눔의 집은 오갈 곳이 없는 지적장애인 6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이날 생활복지과 직원들은 심심일만 모은 성급으로 마련한 백미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나눔의 집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전북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큰 호응'

농촌지역 마을변호사제도

도내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지는 농촌지역 마을변호사제도도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상담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도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지난 2012년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도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법률상담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소속 20명의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실'은 2016년부터 야간상담까지 월 4회(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주말,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야간) 실시하며 민사, 형사 및 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각종 법률 및 소송에 대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onbuk.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경찰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버스 비상조치 홍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순찰대에 따르면 고속버스의 특성 상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키고 동시에 화재 진압을 해야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에 운전기사의 초등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고속버스 화재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승객들은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방법 등 비상대피 요령을 알고는 있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탈출한 승객이 후속 차량과 충돌하는 등 2차 사고의 발생 여지도 있는 만큼 승객을 도로 밖으로 피신시키는 역할도 운전기사의 책임이다.

신상만 9지구대장은 "버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피해의 발생 유무는 사고 발생 1-2분 사이에 결정되는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운전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평소 버스회사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요령 등을 반복적으로 습득하여 버스기사 개인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대 총장선거 보이콧'

29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입구에서 교수회의 일방적인 태도에 맞선 공대위 총장선거 보이콧 결의대회가 실시된 가운데 비교원과 학생들로 이뤄진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비교원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총장선거 보이콧을 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민 소통플랫폼 함께 배워요'

전주시, 내달 11일 '공동체라디오 노송FM' 교육과정 운영

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동체라디오 노송FM'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동체라디오 '노송FM'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팟빵'과 같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공동체미디어이다.

시와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주도시혁신센터 내 방송시설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미디어 이해를 위한 소양교육을 하는 등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총 12차례의 강의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공동체 라디오의 이해에 관한 이론교육 △프로그램 기획 △대본 작성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 실무 관련 내용으로 방송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방송국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송효철 기자

이와 함께, 교육생들은 현직 라디오 관계자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하는 네트워킹 워크숍을 통해 활동역량을 기르고 배운 내용을 직접 활용해볼 수 있도록 '전주시 사회적경제비판회'에서 보이는라디오 진행도 맡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체라디오 교육프로그램을 2회 운영했으며, 지난 4월에는 기본 교육 수료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과정도 운영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라디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풀에 대한 기반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체라디오 '노송FM' 방송 제작교육은 관심 있는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7일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063-281-9332)로 접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